

## 정 부 , R&D 전 문 수 행 벤 처 기 업 설 립

앞으로 정부출연연구소와 중소기업이 각각의 인력과 자금·기술을 공동으로 출자해 연구개발(R&D)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벤처기업이 등장하게 된다. 정부는 10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형태의 R&D 전문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새로 설립되는 R&D 전문기업은 자사에 출자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해주거나 기술이전을 하게 된다. 다른 기업의 차세대 제품들을 주문받아 개발해 넘겨주는 아웃소싱도 맡는다. 정부는 R&D 전문기업이 기술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내년에 발행되는 과기국채를 통해 조성될 기금 중 일부를 출자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이 투자할 경우 현금 및 현물을 전액 연구개발비 투자로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대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도 구상 중이다.

한편 정부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들이 R&D 전문기업에 참여하더라도 기존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 주고, 사업이 실패한 후에 복귀가 가능하도록 했다.

## 산 자 부 , 내 년 중 장 기 기 술 개 발 사 업 에 3425억 투 자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2006년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안'을 통해 내년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에 3425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은 앞으로 5~7년간 진행될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크게 ▲성장동력기술 개발 ▲중기저점기술 개발 ▲차세대 신기술 개발 3개 분야에서 최종 30개 과제를 선정한다. 산자부는 10월부터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연구기획 대상 후보과제를 도출하고 연구기획, 평가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최종 과제 주관기관 선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투자 대상자 선정에는 실제 사업화 성공 여부와 국제표준 선점가능 기술에 큰 비중을 둘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에는 5~7년간 각각 연간 20억원가량이 지원된다.

내년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조사와 연구기획을 강화해 '전략적 기술개발'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기획 수요조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연구기획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전체 일정도 올해보다 2개월 늘려 9개월로 정했다. 특히 중기저점 기술개발 사업에는 시범적으로 연구기획, 최종지원과제 및 주관기관 선정 등 단계마다 경제성 분석평가와 표준선점 가능성 분석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안은 정부의 건의안이며 국회 예산 결정 등에서 일부 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사업화에 중심을 둔 개발사업 추진 방향 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 통 부 , 내 년 IT산 업 8% 성 장 기 대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10월 24일 열린 'IT산업전망 컨퍼런스 2006'에서 내년 IT산업의 생산은 8%대, 수출은 11.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전망은 '2006 국내 IT산업전망 보고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서는 내년 국내 IT산업 생산이 수출에 힘입어 8%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공급과잉 해소에 따른 반도체 회복, 국내업체의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 확대, LCD 가격 하락세 둔화, 디지털TV 수출호조로 내년 11.5% 증가할 것이라 예측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IT산업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 등 여타의 경쟁국들이 첨단 IT분야에서 국내 IT산업을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연구계 전문가들과 지식을 공유했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가 13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IT산업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를 인용해 9월 BSI가 크게 호전되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정보통신서비스 101, 정보통신기기 97,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가 87을 기록해 전월의 83을 훨씬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과 11월의 BSI 전망치 역시 각각 108, 109로 조사돼 IT경기가 연말까지 호전될 가능성이 크다.

**중기청, 내년부터 중소·벤처 컨설턴트 등급화**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상담을 해주는 컨설턴트들이 등급화돼 검증된 컨설턴트로부터의 경영컨설팅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기획예산처와 함께 컨설팅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5개 주관기관의 컨설턴트 1700여 명의 컨설팅 수준을 분야별로 등급을 나눠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한국컨설팅협회,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정보화경영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컨설턴트들은 올해 수행한 컨설팅 내용과 수요자 만족도를 근거로 등급화되며 중소·벤처기업은 이를 근거로 원하는 컨설턴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기청이 시행하는 '쿠폰제 경영컨설팅 사업' 예산을 올해 150억원에서 24% 확대한 186억으로 늘려 중소·벤처기업의 컨설팅 수혜를 높일 계획이다. 쿠폰제 경영컨설팅은 정부가 금액의 60~80%를 지원한 쿠폰을 중소·벤처기업이 구입하고 이를 활용해 민간 컨설팅사를 선택,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컨설팅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이다.

**중기청, 신보·기보와 손잡고 중소·벤처에 11조 신용보증**

올해 4분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11조 2000억원의 신용보증이 중소·벤처기업에 공급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이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0월 24일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4분기에 11조 2000억원의 보증이 공급되면 올해 공급 규모는 총 41조 5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신규보증 규모는 2조 5000억원으로, 신보 1조 8000억원, 기보 7000억원이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라 신보와 기보는 보증운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영업점 실적평가방법을 개선했으며, 보증이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대출상환 비율(내입)을 20%에서 10%로 완화했다.

한이현 기보 이사장은 "신보가 금융기관 출연금을 기보로 전환해 유동성 위기는 해결했으며, 연말까지 3조 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연초 계획대로 올해 11조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규복 신보 이사장도 "향후 장기·고액 보증기업이나 한계기업의 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늘려 질적인 방식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두 기금의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방청,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보증이용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산업단지 50% IT·BT기업에 개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은 구역 내 200여 평에 달하는 산업단지 부지 가운데 50% 정도를 국내 IT·BT 관련 기업에 개방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10월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유치 기본계획안'을 통해 지식정보산업단지 미매각 부지 12만 5000평 중 30%에 해당하는 3만 7000평을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로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부지 가운데 50%를 국내 IT·BT 관련 기업에 개방하는 계획을 실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관련 분야의 유치대상업체를 선정, 투자설명회 및 개별유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상 우대기업의 자격을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완화시키는 한편, 국내기업에게도 외국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주도록 제도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내 IT·BT 관련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외국인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만큼, 앞으로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세계화상 비즈니스 상담 개최

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 권오남)은 10월 10일과 12일 양일간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개최한 '유력화상과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7500만달러의 계약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제8차 세계화상대회 참석차 방한한 전 세계 유력화상들과 서울소재 기업들 간의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외자유치 및 판로개척을 위해 KOTRA와 공동으로 유치한 행사이다. 이 행사에는 서울소재 중소기업 200여 개사가 참가해 약 130여 명의 동남아, 중국, 북미·유럽 및 기타지역 화상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회에 참가한 투자금융 업체 '알티비코리아'는 싱가포르 'Progects社'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가정용 고주파 미용기기 전문업체 '이앤씨월드와이드'는 호주의 'Pan Guo Hwa'와의 수출 상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닝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디코스'는 상해의 '팬토소프트'와 570만달러의 계약실적을 올렸다. 진흥원 측은 "이번 상담회는 사전에 면담일정을 주선해 참가업체별로 맞춤형 미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며 "중소·벤처기업의 판로개척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소감을 표명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송도에 RFID/USN 엔지니어링센터 설립 추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임주환)은 2007년 안에 인천 송도지식산업단지내에 국내 RFID/USN(유비쿼터스센서 네트워크)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REID/USN 엔지니어링센터(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원의 계획안에 따르면, 송도테크노파크 내 사무실을 일부 임차해 현 REID/USN 시험기술개발팀 연구개발 인력 6~7명을 파견하고 건물 건립에 앞서 관련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인력을 충원해 총 20여 명의 인력으로 센터를 운영해 나가게 된다. 이는 정통부가 UTT(유비쿼터스 정보메이션 테크놀로지)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송도지식산업단지내 엔지니어링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총 2900여 평의 규모로 들어설 엔지니어링센터는 시제품 패키징 조립시설, 종합 시험센터, 엔지니어링센터 등을 갖추게 된다.

연구원 측은 센터 완공 시 관련산업의 R&D 지원기능은 물론, 실증 실험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테스트 장비를 제공해 REID/USN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송도는 관련 기업의 82%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밀집돼 있는 만큼 접근성 측면에서 어느 지역보다 유리하다고 밝혔다.

## 벤처리더스클럽 정기모임 개최

벤처리더스클럽(공동대표 변대규 휴맥스 대표·김한섭 KTB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10월 26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벤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 서울대학교 윤석철 교수가 '기술과 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한편 벤처리더스클럽은 오는 18~19일 1박 2일 일정으로 11월 정기모임을 개최할 계획이다. '벤처 M&A 전략'과 '투자자와 자산관리의 성공전략'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 대덕특구, 국제협력 발판 마련 시작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특구본부는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Soplia Antipolis) 재단 및 핀란드 울루, 스웨덴 시스타사이언스 파크를 방문, 상호교류 및 지원을 모색했다. 출범 후 첫 현지 방문을 통한 협력체결인데다 향후 지원본부의 미션이나 발전모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해외교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특구본부는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통하는 소피아 앙티폴리스재단과 10월 24일 MOU를 체결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교류를 통해 세계 클러스터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MOU를 통해 성장동력의 추진방법

등을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도 논의기로 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을 가진 핀란드 울루 테크노폴리스를 방문, 경제적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의 유기적 순환체제를 살펴보고 향후 대덕특구와의 클러스터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세계 초일류 IT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스웨덴 시스타사이언스 파크도 방문, 산학연관 협력의 창구를 맡고 있는 일렉트럼(Electrumb) 재단의 발전 단계와 지원방법 등을 분석, 특구본부에 접목 가능한 부분의 벤치마킹도 예정하고 있다.

특구본부 박인철 이사장은 “대덕특구 출범 후 첫 해외교류인 만큼 이번 교류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앞으로 특구본부와 소피아 앙티폴리스 간 내실 있는 과학교류와 더불어 유럽지역의 마케팅 교두보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과 기 부 유 관 기 관 혁 신 행 사 10월 마지막 주에 몰려

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유관기관들의 혁신 관련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했다.

먼저 스타트를 끊은 한국전문연구원(원장 박석재)은 24일부터 26일까지 ‘혁신리더 워크숍Ⅱ’을 진행했으며, 25일에는 한국지질연구원(원장 이태섭)이 ‘혁신경진대회 공개발표회’를 가져 혁신상(1개), 진보상(2개)을 선정하고 연구원의 혁신성과를 대내외에 전파했다.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혁신현장이어달리기’를 통해 혁신담당관들이 우수기관의 혁신비전과 혁신사례 등을 공유·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채연석)은 충남 예산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최고관리자의 의식혁신교육’을 진행했다. 원장을 비롯한 최상위 간부진이 참여해 ‘도약을 위한 기관의 혁신역량 강화 및 혁신리더십 제고’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의 장을 열었다. 한국전기연구원(원장 박동욱)도 무주리조트에서 27일부터 28일까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혁신계획 발표대회 및 극기산행’을 가져 혁신마인드를 가집과 동시에 극기산행을 통한 구성원의 일체감을 조성했다.

### 제 8 회 여성 벤처 기업인 성공 사례 발표회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성공한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안정된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여러 사례를 초기 여성기업가에게 들려줌으로써 용기를 북돋우고, 경영방침을 제시해 주기 위한 발표회를 개최한다.

#### 행사 개요

- ◎ 주최 : 중소기업청
- ◎ 주관 : 한국여성벤처협회
- ◎ 일시 : 2005년 11월 9일(수), 오후 3시 20분~5시 40분 (예정)
- ◎ 장소 : 강원도 원주 상지대학교

산업 대표 외 3명의 성공사례발표, 질의응답

#### 참가 신청

-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ovwa.or.kr), 팩스 02-6009-8502, 이메일 kovwa@kovwa.or.kr
- ◎ 신청마감 : 2005년 11월 5일(토)
-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이은영 대리 (02-6009-8501)

#### 행사 내용

이희자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사의 인사말, 격려사, 흥천환경

### 제 5 회 창조적 여성 리더 포럼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리더의 성공적·창조적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될 포럼을 개최한다.

#### 행사 개요

- ◎ 일시 : 2005년 11월 10일(목) 오전 7시~9시
- ◎ 장소 :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구 아미가) 7층 두베룸

#### 참가 신청

-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ovwa.or.kr), 팩스 02-6009-8502, 이메일 kovwa@kovwa.or.kr
- ◎ 신청마감 : 2005년 11월 5일(토)
-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이은영 대리 (02-6009-8501)

#### 행사 내용

등록, 조찬, 명지대 김정운 교수의 '노는 만큼 성공한다' 강의, 질의응답